성폭력 사례연구

1. 어린이 성폭력

1) 어린이 성폭력의 특징
   ① 형사미성년자인 만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② 본 상담소의 상담사례 중 25-30%를 차지
   ③ 피해연령은 6-13세가 많음.(생후 4개월 피해사례도 있었음)
   ④ 피해장소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 등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많음 (특히 공동거주지에서 성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성폭력에 있어서는 안전지대란 없다"는 인식이 필요)
   ⑤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75%정도이고 이중 친족에 의한 것이 40%
   ⑥ 아동피해가 많은 이유는 피해자의 물리적인 힘이 약하다는 것과 어른 중심의 교육때문(어른 말을 잘들을 것, 대꾸하지 말 것 등)

2) 피해 어린이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① 악몽을 꾸거나 밤에 잘 때에도 불을 켜놓으려 하고 잠자는 것을 두려워 한다.
   ② 오줌을 싸거나 손가락을 빠는 등 이전보다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한다.
   ③ 밥맛을 잃거나 반대로 음식을 너무 많이 먹기도 한다.
   ④ 화를 잘 내고 불안해하며 신경이 예민해진다.
   ⑤ 평소보다 더 많은 안전과 보호를 부모에게 요구하고 매달린다.
   ⑥ 낮에도 혼자 있기 두려워하고 문을 꼭꼭 닫아놓는다.
   ⑦ 집중력과 학교성적이 떨어지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⑧ 의학적으로는 별 이상이 없으나 자주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⑨ 특정 인물·장소·물건을 두려워한다.(옷·신발·지하실 등)
   ⑩ 계속해서 강박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기도 한다.

3) 보호자가 할 일
   ① 아이를 조용한 장소로 데리고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이들이 알기쉬운 말로 물어본다. 이때 아이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아 아이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② 솔직함에 대한 칭찬, 부모가 보호해 줄 수 있음을 이야기해서 아이를 안심시킨다.
③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외상여부를 확인,치료하고 진단서를 떼어 놓는다.
④ 패해당시 아이가 입었던 옷(특히 속옷)은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에 잘 보관해둔다.
⑤ 아이의 앞에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가해자에 대한 심한 말도 삼간다.
⑥ 아이가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거나 불안과 두려움을 나타낸다면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한다.
⑦ 고소여부를 결정한다.(이때, 속옷이나 진단서 등이 중요한 증거물이 된다.)

2. 직장내 성폭력

1) 직장내 성폭력이란?



근무중 혹은 채용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강간뿐 아니라 불쾌한 성적인 언어나 행위로써, 여성에게(혹은 남성에게) 굴욕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2) 특 징

① 외모나 옷차림 등을 빗대어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쓸데없이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한다.
② 퇴근 후 혹은 휴일에 일을 핑계로 만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일단 나오면 일보다는 부인과의 불화나 건강 등을 내세워 식사를 제의하며 고독함을 토로하는 등 여자로부터 동정심을 유발하여 성적인 공격을 쉽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
③ 회식 후 같은 방향이라며 차편을 제공하고 다시 술자리를 마련하거나 출장, 야유회 등에서 다른 동료들을 따돌린 후 성폭행을 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숙박업소에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형사처벌이 쉽지가 않다.
④ 여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상대가 꼼짝 못하도록 위협하여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3)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법

① 업무관계에 있어서도 평소부터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다.
② 평상시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동료직원으로 인식시킨다.
③ 성폭행의 대상이 될 때마다 정확하고 단호하게 불쾌하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이때 웃거나 시선을 피하지 말고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 상태에서 이야기 한다.
④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시 다른 직원에게 알린다.
⑤ 피해 상황을 일지에 쓰거나 자신이 입은 피해를 상세히 기록한다.
(기록을 「등기」로 가해자에게 보낸 경우 후에 증거물로 사용가능)
⑥ 여직원회나 노조에 알려 집단행동을 한다.
(실제로는 직원 5인이하의 소규모 회사에서 많이 발생하여 어려움이 있다.)

3. 친족 성폭력

1) 특 징

가족 혹은 4촌이내의 친인척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한다. 이 경우 가해자 공동거주나 빈번한 대면으로 인해 피해자가 일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경우가 많다. 전체 상담 중 16.7%를 차지하며, 가해자는 친

부와 (이복)형제가 각각 18.2%로 가장 많고 피해연령은 8-13세가 44.4%로 가장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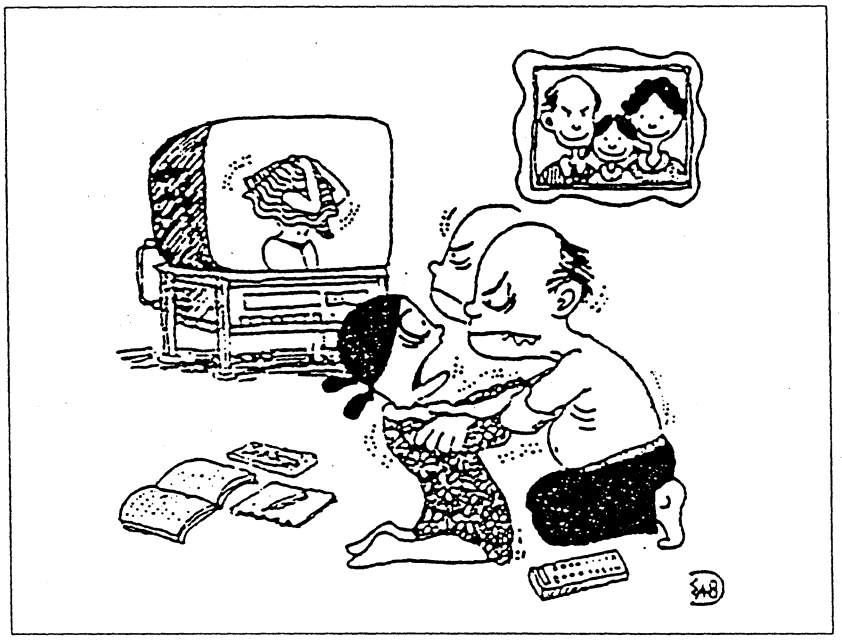
2) 가족 구성원의 특징(아버지가 가해자인 경우)

어머니: 보통 경제적, 감성적 지원을 위해 결혼관계를 유지하며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고, 자신과 딸의 역할이 바뀐 것을 수동적·적극적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또한 남편과의 완충지로 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아버지: 권위적이고 가정내에서 전권을 휘두르며 폭력적이다. 또한 이들 중에는 어린 시절 성폭행 피해자인 경우도 있다.

3) 친족 성폭력 피해여성이 겪는 증상

① 깊은 정신적인 상처
② 성에 대한 강한 혐오감과 거부감
③ 가족에 대한 배신감과 소외감
④ 강한 자기 비하감·무력감·상실감·분노



4) 피해자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

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공간적 격리가 급선무
②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금물이며,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확실히 인식시킨다.
③ 가해자에게 편지쓰기 등을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의 고통과 분노를 외부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4. 데이트 강간

1) 정 의

데이트 강간은 14세 이상의 남녀 쌍방이 이성애의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강간을 말한다.

2) 특 징

① 피해 연령층이 10-20대에 집중

② 피해장소가 숙박업소인 경우가 많다.

③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문제나 가해자의 유인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3) 문 제

피해 당사자조차 강간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가해자와의 사적인 관계 때문에 법적처리에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5.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1) 특 징

① 가해자가 평소 안면이 없던 사람인 경우(강도·택시기사·지나가는 사람 등)

② 피해정도가 심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소지품, 머리카락, 체모등 최대한의 증거확보가 중요하다.

③ 피해자는 가해자가 다시 나타나서 폭행 할 수도 있다는 불안, 두려움이 크다.

④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주위사람의 보살핌과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캠퍼스 성폭력 공론화

여성신문 95. 9. 24

"더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
전남대 여학생회 대책요구 나서

한 여대생이 교내에서 동료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학생들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대 총여학생회는 9월5일 게재한 대자보에서 학생회 일을 하는 한 여학생이 지난 7월 농대 휴게실에서 잠든 사이 알고 지내던 남학생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여학생회는 "그동안 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수차례 발생해 왔으나 학교당국이 명예실추를 우려, 이를 쉬쉬하는 바람에 이같은 문제가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학교측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자보는 이 여학생이 당시 상황과 그 이후 그 남학생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느꼈던 심적 갈등을 일기 형식으로 적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남대 여학생들은 그 남학생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학교당국에 이 학생의 처벌 및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발생한 성폭력 사례의 공론화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일보)

소녀가장 성폭행

한겨레 96.7.8

"주민 10여명 20여차례" 11살 자살기도 중태

초등학교 소녀 가장이 마을 주민 10여명으로부터 3개월 동안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일기를 남기고 자살을 기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이아무개(11·초등학교 6년)양은 지난 2일 오전 10시께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마을에 사는 정아무개(13)군 등 마을 사람들로부터 23차례에 걸쳐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일기를 남긴 뒤 극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해 천안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이양의 일기에 따르면 이양을 성폭행한 사람은 중학생에서부터 대학생·직장인까지 12~14명에 이르며, 이들 중 일부는 이양에게 강제로 본드를 들이마시게 했다.

아산경찰서는 6일 곽아무개(20·대학생)씨 등 8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으나, 이날 저녁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고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이양은 난 지 10개월 만에 어머니가 가출하고 3살 때 아버지를 여읜 뒤 생활보호대상자인 할머니(74)와 함께 살아온 소녀 가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황순구 기자

가정폭력 아버지 구속

전치2주 상처 '엄중처벌'

서울 서부경찰서는 7일 자신의 딸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폭행치상)로 박점석(45·노동·서울 은평구 수색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이 전치 2주 정도의 상처를 입힌 피의자를 구속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앞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방침으로 주목된다.

박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20분께 학교에서 돌아온 딸(13·ㅅ중학 2)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웃옷을 벗기고 주먹으로 때린 뒤, 이어 방안에 있던 망치 손잡이로 머리와 팔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이웃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박씨를 붙잡았다. 정남구기자